受 講 雜 記

——正司書資格取得講習會——

李 鍾 禧
(交通公務員敎育院圖書館)

圖書館學 初入

1965年 10月11日부터 30日까지 20日間 나는 正司書資格取得講習을 받았다.

내가 交通圖書館으로 온지 滿 3年7個月 동안에 이번까지 꼭 세번째의 圖書館講習을 받는다.

普通班·專門班·正司書資格取得講習 이래서 세차례의 敎育을 받은 셈이다.

元來 交通部라는 特殊官廳에서 運轉職을 10餘年, 行政職을 10年가까이 그래서 都合 20年이 넘도록 勤務해 온 사람이 圖書館이란 델 뛰어 들었으니 그 專門知識이 있을 理 萬無했다.

그러나 다만 내가 行政職에 있을 때는 人事課에서 職員들의 敎養分野를 擔當한 일에 近10年동안 從事한 것이 契機가 되어 이 圖書館과 因緣을 맺게된 것 같다.

圖書館學이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던 處地에 分類法이니 編目法이니 하고 들고나오는 바람에 처음에는 퍽 어리둥절 했었다.

그러나 어떻든 圖書館일을 맡아 하게 된 나로선 그 學問이 都大體 무엇인지는 알고 넘어가야 할 立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 交通圖書館에 있는 册을 이리 저리 뒤져 본 結果 내 口味에 맞는 것이 다음의 세가지 册과 圖書館講習敎材等이었다.

1. 圖書館핸드북 日本圖書館協會
2. 分類法要說 加藤宗厚
3. 圖書館學의 展開 大佐三四五

以上 몇가지 案內書를 味讀하는 가운데 圖書館學의 大綱을 掛酌하게 되었다.

뜻깊은 一員

以上이 내가 圖書館學을 알게된 첫 段階다.

그後 이번까지 세차례의 圖書館講習을 받는 동안 圖書館學에 對해서 좀더 親熟해질 機會를 가질 수 있었다.

分類法 千惠鳳

目錄法 白 麟
圖書館組織管理 李喆珪
參考業務 金宗會
資料整理(選擇包含) 成宅慶
非圖書資料 任鍾淳
書誌學 白 麟

以上의 敎育課程을 하루 7時間씩 아침 9時에 시작하여 午後 4時20分에 끝나는 强行軍으로 꼭 20日동안 繼續受講한 것이다.

무던히나 지루하고 지겨웠던 나날들이었다.

場所는 지금 새로 멋있게 세워진 南山圖書館講堂 總受講者數는 本受講者 57名에 聽講者 8名 合해서 65名이었다.

全國 各級圖書館에서 모인 이들 受講者中에는 地方에서 오신 분들이 大部分이었고, 甚至於는 濟州道에서까지 이 講習을 받으러 올라 오신 분이 계셔서 한편 놀라우면서도 그 誠意에 對하여는 敬意를 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旅費·宿食費·雜費해서 그 經費인들 20日동안의 累計를 치면 적지 않을 것이다.

圖書館人 同僚들이 이 極히 매마른 터전 속에서도 圖書館을 좀더 참되게 運營해 보려는 意慾과 士氣가 불붙고 있음을 이러한 여러 事實이나 그동안의 雰圍氣로 보아서 着實히 느껴온 나로서는 그 一員이 된 것을 퍽이나 뜻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圖書館管理

첫날의 時間表는 9時 登錄을 始作으로하여 開講式 特講·圖書館管理 이런 順序였다.

圖書館管理라는 學問은 一般行政機關에서 組織을 움직이는 事象을 이리 저리 硏究檢討한 體系나 조금도 다를게 없는 學問分野다.

行政大學院에서 行政學을 專攻하신 國會圖書館의 圖書課長으로 계신 李喆珪先生께서 擔當해 주셨다.

誰遜하신 가운데 充實한 講義案을 마련해서 圖書館發展에 기틀이 될 모든 事案을 많히 啓示해 주셨음을

感謝해마지 않는다.

本來가 이 行政學分野는 管理의 經營이니 하는 딴 名稱으로도 많이 불리우고 있지만 그 元 本產地는 美國의 工場管理 乃至는 企業經營의 深刻한 合理化方案의 摸索가운데서 成長發展된 學問이라 그 原理에있어서는 最少의 費用으로 最大의 效果를 얻으려고 하는 經濟分野의 基本原則에서 조금도 벗어날수는 없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必然的으로 組織管理의 合理化와 人力管理의 合理化에다 人間關係의 妙味를 겻들임으로써 그 經濟原則에 벗어나지 않는 徹頭徹尾한 科學精神의 實踐을 꾀하려는 努力과 無情物인 機械의 取扱과는 또 좀 다른 人間性의 理解와 그의 活用을 意圖實踐한 人間關係의 融合高調가 그 뼈대를 이루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안다.

이러한 基本精神 밑에서 圖書館의 創設로부터 組織管理·人事管理·圖書館豫算·整理業務·圖書館奉仕·藏書管理·圖書館對外活動·圖書館PR·Staff Manual·圖書館建築에 이르기까지 尨大한 圖書館全分野에 걸쳐서 그 講義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었다.

今番은 前期講習이므로 그 約 3分之2程度밖에 講義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 科目만 完全히 「마스터」한다면 圖書館學의 全般에 걸쳐서 그 槪論程度는 收獲을 걷울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이 科目을 들으면서 내가 個別的으로 느낀 點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文化政策 乃至는 敎育政策에 대한 不滿의 感懷였다.

그 原因은 勿論 後進國 共通의 經濟的 不安定에 緣由하는 것이겠지만 아무리 文化·敎育分野의 專門人士들이 細心한 努力과 피땀 어린 自己忠實에서 自己가 屬한 部門의 理想的인 發展土臺를 學的인 考察이나 行動方案까지라도 그 完璧을 이루었다 한들 國家의 政策的인 뒷받침이 없다면 何等 무슨 所用이 있는 것이겠는가 하는 것이다.

特히 이것은 特殊圖書館系列에 있어서는 더욱 甚한 것이어서 圖書館人들의 士氣에 致命的인 決定打를 안겨주는 무서운 흐름이 아닐 수 없다.

우리 交通圖書館만 하드라도 鐵道廳의 特別會計傘下에서 그 命脈을 維持해 오는 形便에 廳 自體에서 圖書館 같은데 精神을 쓸 景況이 없다면 무엇에 발붙여 그 發展을 꾀할 수 있겠는가.

館長이 제아무리 卓越한 手腕家라 하드라도 워낙 圖書館自體의 比重이 鐵道廳의 見地에서 그리 大端한게 못된다면 그 限界線의 思考方式을 뚫고 唯獨히 설칠 수 만도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行政機關에 屬해 있는 圖書館인 關係로 政府全體面에서 觀察하고 判斷하는 總務處關係人들의 劃一的인 思考方式이 各部處의 職制나 人事面에 反映되어 나오므로 이를 克服하고 우리 圖書館人들의 理想대로만 일을 推進해 나갈 수 만도 없는 일이다.

設事 交通部나 鐵道廳에서 圖書館의 位置를 理解하고 그 育成을 꾀한다 하드라도 總務處의 組織管理나 人事關係 部署에서 各 部處와의 均衡이 어쩌구해서 자꾸 말썽을 부리면 이 또한 우리 交通圖書館만이 그에 超然해서 自主發展이 이룩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 좋은 例로는 요 近來에 있은 일이지만 總務處 關係人들의 見解로는 現在 우리나라에 政府機關의 圖書館으로서 國立中央圖書館이 있고, 立法府에 國會圖書館 各 市에 市立圖書館이 있는데 이 圖書館들은 그 名稱을 圖書館이라 하고 各 部處에 所屬되어 있는 圖書館들은 全部 그 名稱을 圖書室로 해야 한다는 마음대로의 劃一的인 單純한 思考와 判斷 밑에 全部 이를 圖書室로 統一名稱을 쓰도록 職制를 改正해 버린 事實이다.

이러한 橫暴는 우리 交通圖書館과 같은 境遇에 있어서는 마치 지나가는 流彈에 맞아서 被害를 입는 것과 같은 억울함이어서 어디가서 속시원하게 하풀이 하나도 제데로 해 볼 수 없는 沈鬱한 心情인 것이다.

그렇다고 總務處의 組織管理課나 敎育訓練課에 있는 분들을 데려다 圖書館講習을 시켜서 이를 認識시킬 수도 없는 일이요, 참으로 鬱鬱하기 짝이없는 昨今인 것이다.

名稱같은 것이야 各己 圖書館들의 規模나 또는 그役割과 機能等 그 圖書館이 遂行하고 있는 使命의 幅을 보아서 그에 어울리게 館으로 하든지 室로 하든지 或은 文庫로 하든지 어느 程度의 自由에 맡길 일이지 總務處에서 제 마음대로 無條件 室로 統一한다는 것은 아무리 이를 善意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無識이나 思考의 淺薄性을 暴露하는 一種의 橫暴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以上은 내 個人의 不平에 지나지 않는 일이지만 어떻든 文化니 敎育이니 特히 우리 圖書館界等屬의 分野는 우리나라와 같이 貧寒한 나라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十字架를 질머진 覺悟나 心志가 서 있지 않고서는 그에 全幅的으로 熱中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언제나 어느 部門에 있어서나 理想과 現實이 그대로 合致된다는 일은 그것 自體가 벌써 矛盾을 內包한 論理이지만 問題는 우리가 逆境에 處해 있으면 處해 있을 수록 그 逆境의 現實 속에서 最善을 다 해 본다는 것, 이것만이 行動人에게 賦與된 唯一의 賢明한 길인 것만은 틀림없는 事實인만치 이 圖書館管理란 學問도 그 理想的인 理念과 行動方式을 修得한 然後에는 亦是

各自의 形形色色 서로 다른 現實 속에서 그에 가장 잘 알맞는 길을 擇하여 機動性있게 헤엄쳐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는 것이다.

名講師 名講義

第2日에 該當하는 12日 火曜日에는 첫時間이 分類(千惠鳳) 두시간·圖書館管理(李喆珪) 두시간·目錄(白麟) 세시간의 順序로 4時20分까지 講義를 받았다.

分類의 講義는 이번 우리가 講習을 받는 동안 가장 흐뭇하게 느꼈던 各講義여서 참 신나는 時間이기도 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若干 失禮되는 發言일런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大學의 講師하면 이 程度의 自己學問에 對한 自信과 分析力과 判斷力 乃至는 그 明決性은 發揮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이분은 分類學에 對해서 相當히 깊은穿鑿이 이루어진 위에 自己나름의 어떤 學的 體系나 所信이 確固히 서 있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다.

現在 梨大·成大·中大講師를 兼任하고 東國大學校 司書課長으로 계신다고 하는데 史學을 專攻하신 다음 圖書館學을 修業하셨다는 것이다.

어떻든 이분은 圖書館學을 하기 以前에 그 學問을 幅넓게 受容할 수 있는 基礎가 確實히 세워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果然 學者다운 天質에다 專攻學問이 着實히 자리잡혀 있는 분으로 느껴진 것이다.

敎材는 圖書館協會에서 發行한 KDC를 가지고 그 基本構造부터 分析해 가면서 그 長短點을 批判하며, 次後의 改正增補되어야 할 點까지 하나 하나 指摘해 나가면서 이를 깡그리 剔抉해보는 果然 學究다운 痛快한 修學의 時間이었다.

그리고 또한 講義方法이 그냥 莫然하게 分類學序說에서부터 내리다지로 解說만 해나가는 平凡하고 무미하기 짝이없는 鈍才들의 手法이 아니라 가장 要緊한 대목만 골라내서 그 核心을 파헤치고 찝어내서 또렷이 보여 줌으로 해서 受講者들이 그 原理를 完全히 把握케하여 此後라도 얼마든지 혼자서라도 그 原理를 適用하여 應用하고 活用해 나갈 수 있는 能力을 길러주는데 焦點을 둔 講義方法이었다.

그리고 每時間마다 한가지씩이라도 그 가장 맺힌 대목을 아주 集約的으로 說明을 加하여 풀어헤쳐 주기 때문에 참 所得과 보람을 느끼는 瞬間들을 가질 수 있었다.

分類學에서 가장 核心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正確한 分類番號를 自由自在로 찾아 쓸 수 있는게 問題된다.

이 分類番號만 正確하게 찾아 쓸 수 있다면 餘他 理論들은 하나의 악세사리나 그렇지 않으면 이 分類番號를 正確하게 찾아 쓸 수 있는 밑받침은 될지언정 그것 自體가 무슨 目的이나 必需要件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이 分類學의 敎案을 보면 序頭에 몇마디 圖書分類의 意義와 圖書分類의 效果에 對해서 極히 알기쉽게 풀어서 簡單히 揭記하고 바로 KDC의 問題點으로 들어간 것이다.

무릇 分類表의 問題點은 助記性의 活用能力에 있는 듯했다.

이 助記性만 잘 活用할 줄 알면 正確한 分類番號를 매기는데 過히 막힐게 없을 것으로 느껴졌다.

KDC에 보면 助記性이 다음 여덟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①一般形式區分 ②地理區分 ③國語區分 ④言語共通區分 ⑤文學形式區分 ⑥宗敎共通區分 ⑦全分類區分 ⑧特殊主題의 共通細目 이러한 順序다.

이 中에서도 가장 알송달송하고 틀리기 쉬운게 于先 地理區分인 모양이다.

그래서 敎案에는 이 틀리기 쉬운 部分만 골라서 그 實力을 기르기 爲하여 많은 演習問題가 揭記되어 있었다.

먼저 본보기로 主題와 分類番號까지 合쳐진 것이 다음 順序로 실려졌다.

地理區分 (1)
地理區分 (2)
地理區分 (3)
地理區分 (4)
宗敎共通區分
文學區分
言語區分
全分類區分
特殊區分

以上 各 區分이 約 30~40問題씩 실려진 것이다.

그 다음은 主題만 실리고 分類番號는 各自가 KDC에서 골라서 記錄토록 한 問題와 分類番號만 실리고 主題를 記錄토록한 問題를 다음과 같이 많이 提示한 것이다.

例를 들면

번호를 기입하시오(조기성 기호)
주 : (형식)이라함은 형식구분을 가리킴.
1. 연감(형식)
2. 인디아
3. 종교신앙 等等

다음 번호에 주제를 기입하시오(종류)

1. 016.37

2. 027.0913

3. 011.20464 等等

이러한 問題가 形式區分에서부터 各門別로 9門까지 每門當 約 40~50問題씩 記載된 것이다.

이 問題를 各自가 自己 집에서 해가지고 나오면 講義時間에 先生과 같이 다시 檢討하고 그 中에 問題되는 것만 그때 그때 說明을 加해서 解明해 주는 方法이 主된 分類學의 講義로 充當된 것이다.

어떻든 이번 講習에서 KDC의 難點과 그 槪略을 修得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나로서 큰 收獲이 아닐 수 없다.

豊富한 情報

第3日은 資料整理(成宅慶) 두시간·參考業務(金宗會) 세시간·分類(千惠鳳) 두시간이었다.

資料整理는 主로 圖書館資料의 選擇이 그 內容이었다.

別로 特記할만한 印象에 남는 것은 없었으나 講師님이 誠意를 다 하여 많은 資料를 調査蒐集해서 豊富한 情報를 提供해주려고 애쓰신데 對해서는 퍽 感謝한 心情이었다.

이 資料選擇分野는 一般的인 基本知識만 充分하면 다음은 擔當者의 誠實性 如何에 따라서 일의 伸縮이 左右되는 것으로 解釋된다.

別途로 이 分野가 하나의 體系있는 科學으로 成立될 性質의 것도 아니므로 主로 擔當者의 基本知識에 依해서 選擇資料만 着實히 蒐集整理해 놓으면 그 다음은 擔當者의 敎養程度에 따라 좋고 또한 適切한 圖書가 選定되는게 아닌가 생각된다.

勿論 어느 程度의 一般的인 選擇基準은 세울수 있는 것이겠으나 個個의 圖書에 對한 良否를 判斷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個人의 基本敎養과 知識如何에 따라 左右될 수 밖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

收書源의 調査整理가 이 事務의 主된 日常業務內容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實地選擇은 그時 그時 判斷하여 가려나가면 되는 것이다.

第4日 以下도 大槪 每日當 3科目程度를 配分하여 한 科目을 두 時間 乃至 세時間씩 繼續 講義하는 式으로 하여 줄곧 마지막날까지 끌고 나갔다.

이 재미도 없는 얘기를 以上더 지루하게 橫說竪說 延張해나가는 것도 讀者 여러분에게 對한 禮가 아닌듯 하여 앞으로는 이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내 印象에 남은 것만 골라서 몇마디만 더 敷衍해 보고, 本稿를 끝맺기로 하겠다.

書誌學의 魅力

白麟先生에게서 目錄法과 書誌學의 講義를 받았는데 좋은 講義를 들었다고 생각했다.

特히 書誌學같은 것은 學問으로서도 참 뜻있는 學問이라 여간만 魅力을 느낀게 아니었는데 워낙 時間數(6時間)가 적기 때문에 體系있는 本格的 講義를 들을 수는 없었고 極히 槪略的인 얘기만 들은 셈이다.

于先 講義案 內容을 一瞥하드라도 호뭇할 程度의 生疎하고 妙한 用語들이 많아서 本講義야말로 진짜 工夫를 하는 氣分으로 受講할수 있으리라는 期待가 컸었다.

그러나 實際 講義를 듣고 보니 도무지 時間配定이 턱도없이 短時間이라서 아쉽기 限量 없는 心優였다.

이런 講義는 此後라도 特別講座를 設定하여 長期間 滿足할 수 있는 時間 配定을 하여 每年 그 機會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다.

藝術品을 鑑賞하면서 그 맛을 느껴 즐기듯이 書誌學에서는 骨董品을 鑑賞하는 어떤 韻致와 恍惚感마저도 자아내 줄 수 있는 境域이어서 圖書館人들은 이 分野를 깊고 또한 넓게 잘 開拓 攄得하여 우리 圖書館人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矜持를 樹立할 必要도 切實히 느껴지는 것이다.

바라건데 協會側에서 어렵드라도 부디 이 講座의 設定에 腐心해 주시기 바란다.

白麟先生께서는 實物의 鑑定法이 그 中核임을 力說하시고 特別히우리 受講者 一行을 서울大 中央圖書館으로 데리고 가서 貴重本을 보여 주고 그 하나 하나를 說明해 주시는 手苦까지도 베풀어 주셨다.

後期 講習을 期待하면서 이 얘기는 이 程度로하고 다음은 目錄法에 對해서 느낀 點은 카드를 만드는 實習을 數種 試驗해 보기는 했으나 아무래도 未盡한 데가 많은듯 하여 앞으로는 本講義를 카드作成의 實習을 爲主로 進行시키는게 受講者들에게 퍽 有益할것 같다.

分類講義가 分類番號를 찾는 實力을 기르는데 重點을 두고 그時 그時 問題點을 解明해 주듯이 이 目錄法도 實際로 카드를 만들면서 그 問題點을 또렷이 끄집어 주어 完全히 그 要領을 自己 것으로 만들도록 해나가야 할것 같다.

카드作成의 方法도 目錄規則에 있는 順序대로 全部이를 試驗하여 攄得케 하려면 여간만 많은 時間이 所要되는게 아닐 것이다.

그러나 圖書館人이라면 最少限 누구나 이것만은 一但「마스터」해 놓아야 할줄 아는 故로 時間이 없으면 없는대로 重點的으로 實習爲主의 講義를 해야만 實所得이 있다. (27面에 繼續)

人口의 增加, 敎育의 擴張, 技術의 發達과 함께 圖書館은 增加됨은 當然한 所致다. 우리나라 學校圖書館의 境遇만 보드라도 圖書館法이 通過된 後 1963年度의 259個館이 64年에 950館, 65年度 3月現在로 1,422館⑫이나 되었다.

이러한 學校圖書館에서 보드라도 目錄의 種類, 記述은 原則에 逸脫치 않는 範圍에서 實際에 있어 되도록 簡素化됨이 期待⑬되는 것이다.

圖書館目錄은 書誌學的인 具體性은 實質的으로 要求되지는 않는다. 簡略한 目錄이나마 圖書館의 資料가 充分히 活用되면 되는 것이다.

目錄의 國際化에 따른 技術革新은 目錄의 大量生産을 可能하게 하고 企業的인 面에서도 새로운 樣相을 던져 주고 있다. 印刷카드의 境遇 그 自體가 지닌 缺點 即 製作·供給의 遲延性, 注文購入해야 된다는 問題點은 있으나 이것의 採用으로 因해 標目의 決定, 著者事項, 分類의 調査, 副出等과 目錄作成勞力의 經濟化는 이룩되며, 整理事務의 能率化는 期待가 可能하다.

目錄의 一般的 理論은 現時點에서 볼 때 普遍化된 것이 明白하다. 따라서 目錄技術에 關한 諸問題도 目錄者와 더부러 多角度로 再檢討될 時期가 머지 않아올 것이 믿어지는 것이다.

<參考引用文獻>

(1) Hessel, Alfred: A History of Libraries p.198
(2) 圖書館界 Vol.7 No.3 p.83
(3) A.L.A. Bulletin, 1960 No.3
(4) Library Quarterly Vol. 36 No. 1. 1964.
The Catalog in European Libraries
(5) 圖書館雜誌 Vol.50 No.1 p.4
(6) 同志社大學圖書館學會紀要 Vol.1
(7) 現代の圖書館 Vol.3 No.3 p.146
(8) 專門圖書館協會編 資料管理ガイドブック p.133
(9) 國會圖書館報 Vol.2 No.3 p.5
(10) 韓國目錄規則, 報告
(11) 圖協月報 Vol.1 No.1 p.20
(12) 韓國의 圖書館, 1965
(13) 整理技術テキスト p.37

(39面에서 繼續)

任鍾淳先生(延世大 圖書館 司書長)이 맡아 주신 非圖書資料야 말로 本格的인 大學講義式 講義法이었다.

노트에다 깨알같이 草案을 잡은 硏究調査記錄인 講義案을 들고 나와서 開講劈頭부터 印刷體 글씨로 빡빡히 黑板에다 베껴 내려가면서 차분히 說明을 加해나가는 手法인데 잠시 숨쉴 틈도 주질 않는 것 같은 氣分이었다.

沈着하시고 內容이 充實한 빈틈없는 講義여서 亦是 敬服을 當하지 않을 수 없었다.

華麗하고 才致스러운 面은 없었으나 그 대신 漏落이나 疎忽이 없는 꽉 짜여진 講義인 것이다.

實力을 느끼게 하는 講義라면 아마 이런式의 講義를 말할 것이다.

任先生은 워낙 工夫를 많이 하시는 분임이 틀림없었다.

事實 암만 20日間의 短期講習에 나오는 講義라 할찌라도 先生 自身이 着實한 工夫도 없이 또한 別 準備도 없이 氣分나는대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止揚되어야 할 줄로 안다.

先生이 不誠實하면 무엇보다도 受講生들이 義憤을 느끼게 된다.

또한 어떤 悔辱感마저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貴重한 時間을 틈타서 멀리 濟州道에서까지 올라오신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熱意를 보아서도 講師되시는 분들은 着實한 準備를 해 주시는게 禮儀일 줄안다.

좋은 紐帶

끝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이번 講習을 通해서 우리 受講生들이 얻은 附隨的 所得이 있었는데, 各處에서모인 各級 圖書館의 同志들과 서로 知面이 되고 또한 同期生으로서의 親密感과 紐帶를 맺을 수 있었다는 點이다.

20日間의 그 지루하였던 强行軍의 나날들을 同苦同樂하면서 서로 慰勞도 하고 더러는 不平도 쏟아 놓아보면서 그러는 가운데 그 人間의 밉고 고운點, 弱點長點까지도 어느 程度는 느껴 알게 되어 더욱 意義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協會側에서도 한분은 늘 나와 계셔서 出席狀況을 把握해 주셨고, 閑談도 서로 나눌 機會가 있어서 親舊가 될 수 있었다.

또한 協會의 崔根滿總務部長께서 가끔 나오셔서 그 謙虛한 가운데 은근하고 구수한 말씀으로 여러 面으로 慰勞와 激勵를 해주어서 퍽 고마운 印象이었다.

南山圖書館側에서도 館長 以下 全職員되시는 분들이 受講生들을 爲하여 갖은 便宜를 보아 주었고, 視聽覺室에서 映畵도 여러차례 보여 주어서 疲勞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